

200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대본

1. 이제 심리학에 관한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으레 빠지지 않는 회의. 회의실로 들어선 당신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상사의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아니면 늘 맞은편인가요?

조직심리학자인 리빙스턴에 따르면 회의실 자리의 위치가 그 사람의 조직내 지위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는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은 회의 때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늘 같은 자리에 앉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조직내 지위가 ‘자리’라는 영역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심리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회의실 탁자를 중심으로 우선 탁자의 머리맡에는 주로 최고경영자가 앉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리더의 오른쪽 옆 자리에는 소위 ‘에스맨’이 앉죠. 에스맨의 관심사는 회의 주제나 다른 참석자가 아닌, 오직 리더뿐입니다. 리더의 왼쪽 옆 자리에는 이른바 ‘yes, but’ 유형, 즉 맞는 말씀입니다만……유형’이 주로 앉습니다. 이들은 권력구도에서 약간 복잡한 위치에 있는데요, 리더가 내놓는 큰 원칙에는 대체로 찬성하다가, 곧잘 리더에게 반대 의견을 내놓아 리더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편 탁자의 중간에 앉는 사람은 흔히 ‘중재자 타입’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면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리더를 정면으로 마주 보는 자리에 앉는 사람은 ‘논쟁적인 유형’에 가깝습니다. 회의에 집중하며 종종 현란한 말솜씨로 리더와 상반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죠.

(사이)

지금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자는 의견과, 연구 인력을 늘려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서로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사이) 리빙스턴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을 중재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2. 이번에는 수업 장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편의점의 음료수 진열장에서 음료수 한 캔을 꺼내볼까요? 이상하게도 캔 음료수 대부분이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기둥도 있고, 사각기둥도 있는데 굳이 원기둥 모양으로 캔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음료수 캔의 바닥이 원모양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삼각, 사각, 원. 각각의 둘레의 길이가 같을 때 이 중 어느 도형이 가장 넓을까요? 삼각, 사각보다 원이 가장 넓습니다. 즉, 같은 높이의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이 있다면 이중 원기둥의 부피가 가장 크다는 거죠. 이것은 원기둥이 음료수를 많이 담을 수 있으면서도, 캔을 만들 때, 재료인 알루미늄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효율적인 원기둥 모양의 캔. 그 안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캔의 밑바닥을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바로, 안으로 오목한 아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치 통조림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요, 밑바닥이 평평하죠. 왜 이 두 캔은 밑면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사이) 이는 내용물에 ‘기체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탄산음료의 경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팽창하면 캔 속 압력이 커져 폭발할 우려가 있어요. 이 폭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캔의 밑바닥 모양을 아치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을 오목하게 만드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바닥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면 캔 속의 압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거든요.

3.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아(여) : 범수야, 너 시계 샀구나? 멋진데!

범수(남) : (우쭐대며) 멋지지? 이번 생일에 아빠가 사주셨어.

현아 : 야, 좋겠다. 잘 어울려.

범수 : 그래? 고마워.

현아 : 그런데, 범수야. 너 시계 가게에 갔을 때, 뭐 이상한 거 못 느꼈니?

범수 :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현아 : 시계 가게에 진열된 시계들이나 TV광고에 나오는 시계들은 대부분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범수 : 그래? 뭐야? 잘 모르겠는데.

현아 : 시계 가게에 진열된 시계들이나 TV광고에 나오는 시계들은 대부분 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어.

범수 : 뭐? (사이) 어? 듣고 보니 그런 거 같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니?

현아 : 그럼, 있구 말구. 보이지 않는 마케팅 기법이 숨어 있지.

범수 : 그게 뭘데?

현아 : 소비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상품 하나에도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

범수 : 그래?

현아 : 시계 바늘을 10시 10분에 맞춰놓는 건 시계 세공업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시작됐어. 시계 회사들이 이 V자형을 고안해낸 건 12시 표시점 아래 적혀 있는 상표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야.

범수 : 아하. 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키면 상표명이 가려지지 않는구나.

현아 : 그래. 바로 그거야. 그리고, 이 역삼각형 구도는 디자인 감각을 살리고 동적인 느낌을 주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게 되지.

범수 : 그렇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 둥근판에 V자면, 음……. 웃는 모습으로 연상되기도 하네.

현아 : 야, 진짜 그러네. 재밌지? (사이) 이번 수행평가 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해봐야겠어.

[4-5]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책을 담당하시는 박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유정인 님.

유정인(남1): 네, 너무 답답합니다. 설, 추석 등의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방 국도보다 소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저속 통행을 하는데도 도로공사는 꼬박꼬박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저속도로를 가는데 왜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여1):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올려 이를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행료를 감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습 정체 구간 통행료를 올려 고속도로 차량 통행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유정인(남1):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총칙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에 대해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즉, 유료도로법은 시간과 비용에서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행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통체증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할 때에는 속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비자의 이익만큼 통행료를 감면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회자(여1): 박 과장님,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과장(여2): 명절이나 관광철 등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폐지하면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투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유지 관리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이러한 비용을 만약 통행료가 아닌 국고에서 충당한다면 이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